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인플레이션 소비를 줄일 수 없는 품목에 영향 주고 있다
- Bloomberg: 인플레이션보다 일자리 상황에 관심 높다
- CNBC: 미국인 59%가 경기 침체라고 잘못 생각한다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증시, 소비자 물가 발표 앞두고 오름세 보여
- Bloomberg: 금값도 상승한다

[미국 대선]

- Financial Times: 카말라 해리스의 5가지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물류]

- Bloomberg: 미 동부와 걸프만 항구 노조 협상 교착 상태

[원유]

- WSJ: OPEC, 중국 우려로 석유 수요 전망 소폭 줄여

[미중 관계]

- WSJ: 중국의 악몽은 트럼프와의 2차 무역 전쟁
- NYT: 미중 무역 긴장 속에 '미중 금융 워킹그룹' 개최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여행 업계, 경기 둔화 조짐
- CNBC: 레스토랑 업계, 매출 부진 속 '가성비'에 주목
- CNN Business: 의료 산업은 강력한 일자리 성장세 유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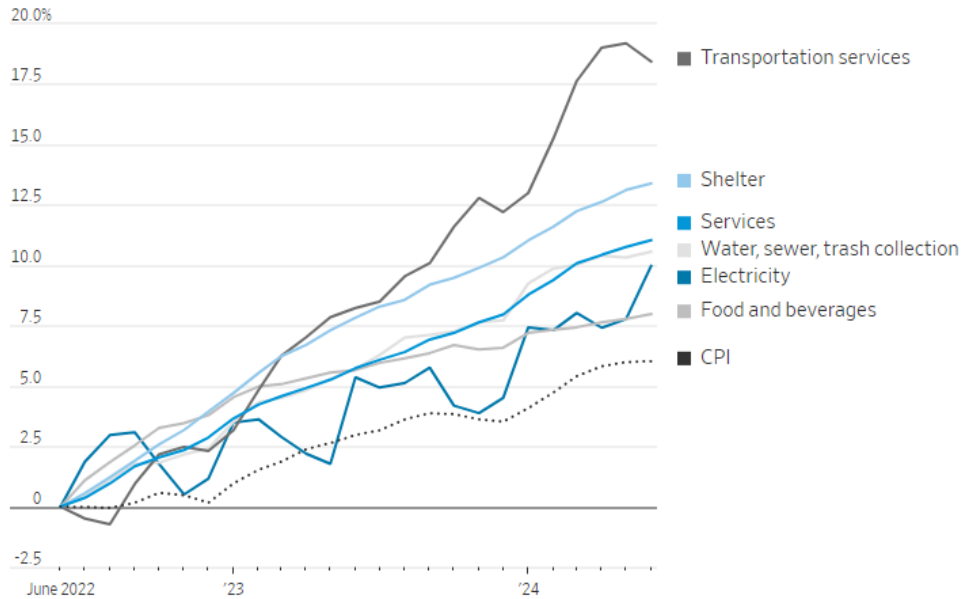
WSJ: Inflation Hurts Most for the Things We Can't Skimp On

인플레이션 소비를 줄일 수 없는 품목에 영향 주고 있다

- 미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2년전 9.1% 최고치를 보였는데 최근엔 소비자 물가지수가 3%로 하락했다.
- 그러나 중요한 품목과 서비스 비용은 내리지 않고 있다. 임대료와 전기료는 과거 2년간 10% 이상 올랐고 자동차 보험료는 거의 40% 인상된 것으로 연방 노동부 지표는 밝혔다. 특히 소비를 줄일 수 없는 품목들이 내리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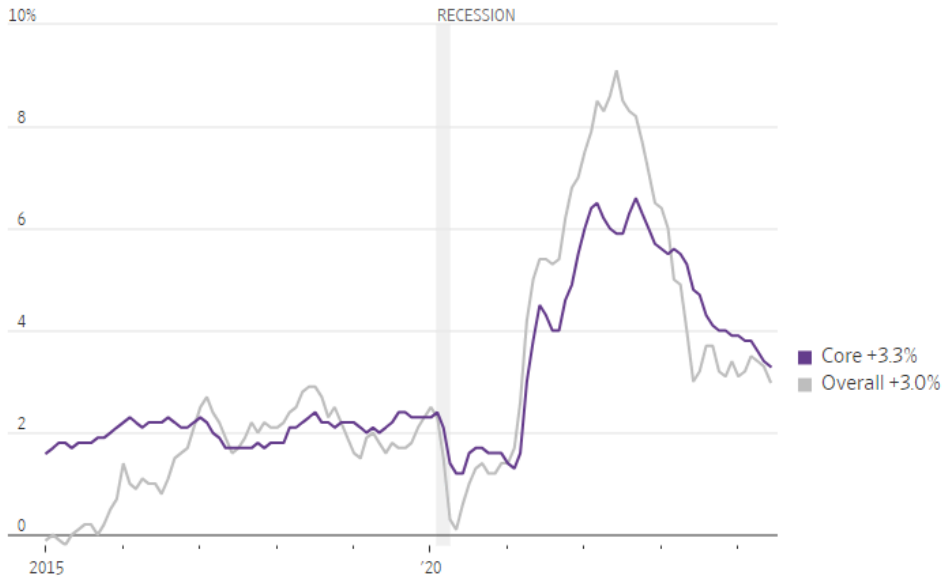
- 아동 데이케어 비용이 지난 2년간 6.4% 상승했다. 지난 3년간의 가격 상승은 미국인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과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일자리 시장의 둔화는 그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 이번 주 수요일 연방 노동부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Change in the consumer-price index since June 2022



Source: Labor Department via St. Louis Fed

Consumer-price index, change from a year earl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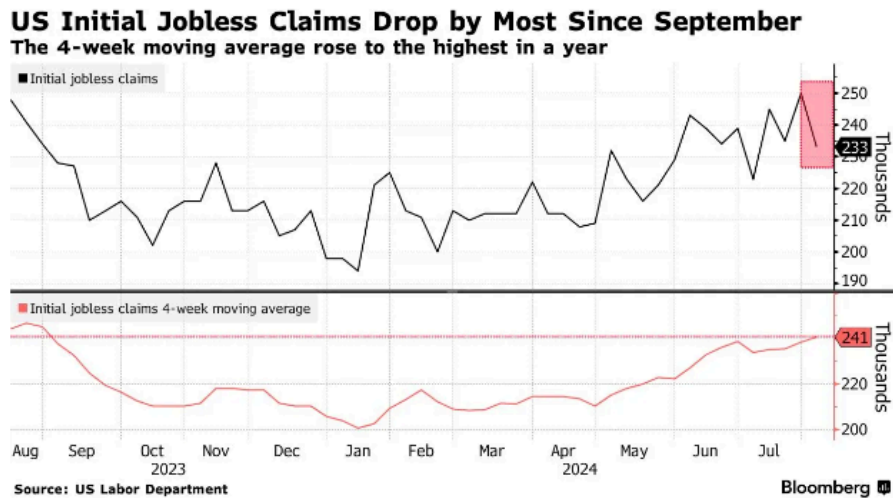
Note: Core excludes food and energy prices. Source: Labor Department

WSJ 기사

Bloomberg: It's Inflation Week in the US. But Everyone's Talking About Jobs

인플레이션보다 일자리 상황에 관심 높다

- 이번주 수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지만 정작 사람들의 관심 사항은 2주전에 발표된 일자리 보고서 내용이었다.
- 7월의 일자리 보고서에서 나타난 실업률 상승에 대해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다른 이코노미스트들은 허리케인 Beryl이 지난 2020년 이래 아주 약한 채용 지표에 여파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Eliza Winger and Anna Wong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실업률이 0.2% 더 올라간다고 예상하면서 최근 실업청구수당이 감소했지만 이 지표는 노동시장의 예측력을 이미 상실했다고 말했다.
- 일자리에 대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생각은 더 부정적이다. 지난주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60%가 다소 둔화되면서 일자리 시장이 견조할 것으로, 24%는 크게 약화됐지만 안정될 것으로, 16%는 큰 일자리 손실 발생을 예측했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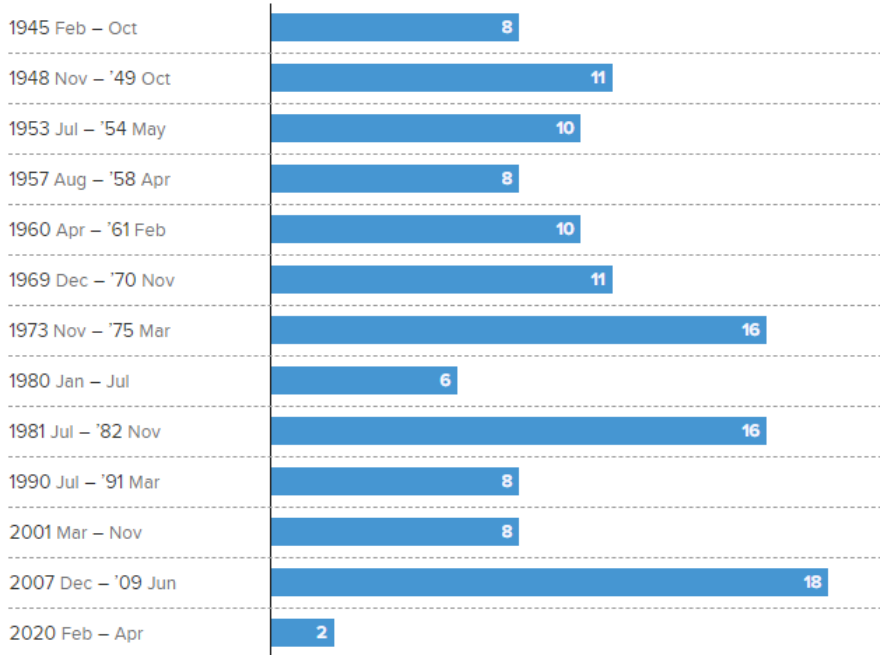
CNBC: 59% of Americans wrongly think the U.S. is in a recession, report finds

미국인 59%가 경기 침체라고 잘못 생각한다

- 미국 경제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관련 Affirm의 6월 2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의 59%가 현재 경기 침체에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들 응답자들은 고비용과 재정 생활의 어려움을 인용하면서 경기 침체는 지난 15개월전인 2023년 3월에 시작되어 내년 7월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U.S. recessions since 1945

Length in months



Graphic: Gabriel Cortes / CNBC
Sourc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NBC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Futures Rise as Traders Brace for Big Data Week: Markets Wrap

미 증시, 소비자 물가 발표 앞두고 오름세 보여

- 트레이더들이 이번 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연준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시하는 가운데 증시는 지난주 하향세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주식은 3일째 상승하고 있는데 소비자물가지수가 7월에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더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최근의 물가 압력 둔화로 연준 관리들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노동시장에 다시 집중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 현재 투자자들은 이번 수요일 발표되는 물가지수가 9월 금리 인하를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둔화되고 동시에 침체 국면을 보이지 않을 좋은 수치를 기대하고 있다.
- 현재 S&P 500은 5,350 인근에 그리고 변동성 지수인 VIX는 비교적 안정 수치인 20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65가 넘어 증시가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Gold Advances to Highest in a Week Ahead of US Inflation Data
금값도 상승한다

- 이번주 수요일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금값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곧 금리 인하로 전환할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금값은 지난주 0.5% 하락한 후에 온스당 2천4백55불에 거래되고 있다.
- 투자자들을 내일 화요일 생산자물가지수, 수요일 소비자물가 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둔화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 둔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연준 이사인Michelle Bowman는 지난 토요일에 여wjs히 인플레 상향이라는 리스크 가능성과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견고성을 보고 있다면서 “9월 금리 인하에 손을 들어줄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전형적으로 고금리는 금값에 부정적인데 쉽게 말해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한편 올해 금값은 19% 상승했는데 지난달에는 거의 최고치에 근접했다.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중앙은행의 금 매수와 중국 소비자들의 강한 금 수요로 인해 금값은 상승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대선]

Financial Times: Where Kamala Harris stands on five crucial issues 카말라 해리스의 5가지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 **외교 정책:** 해리스가 바이든을 지지하면서도 자신만의 입장을 표명하려고 노력해 온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가 외교 정책이다. 특히, 그녀는 최근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에 대한 성명에서 바이든과 다른 견해를 보이기 시작했다. 3월에는 가자 지구의 막대한 고통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 노력을 지지해 온 바이든 대통령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 **경제:** 해리스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바이든의 노력을 지지하며, 휘발유 등 일상적인 비용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인프라 투자 촉진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바이든의 법안을 옹호하였으며, 저렴한 보육 서비스 확대와 노인 지원 등 돌봄 경제에 주력하고 있다. 무역에 관해서는 트럼프의 전면적인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 **낙태:** 해리스는 여성의 생식권을 옹호하는 인물로, 2022년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의회에 여성의 낙태 시술 접근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낙태 제한을 지지한 바 있어 이 문제에 대해 불편한 메시지를 전하는 인물로 여겨졌으나, 민주당은 해리스가 첫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 낙태 문제의 선도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법과 질서:** 해리스는 검사로 오랜 경력을 쌓았으며, 2020년 대선 출마 시 범죄에 강경한 국선 변호사였던 이력으로 일부 진보적 활동가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법과 질서, 치안, 인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그녀의 입장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마리화나 합법화와 형사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등 비폭력 범죄로 수감되는 사람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는 경찰의 입법 행위를 단속하고 경찰을 쉽게 기소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을 도왔다.
- **이민:**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의 이주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해리스에게 부여한 바이든의 초기 결정으로 인해, 그녀는 미국-멕시코 국경 이민자 급증이라는 행정부의 주요 정치적 취약점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해리스는 이 문제와 관련한 초기 언론 인터뷰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취임 후 몇 달이 지나도록 국경을 방문하지 않아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져, 해리스는 트럼프에 의해 무산된 초당적 국경 보안 합의를 지지했다. 이 법안은 국경 보안 요원과 망명 심사관을 추가 고용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할당하고, 7일 평균 5,000명 또는 하루 평균 8,500명이 국경을 넘을 경우 미국-멕시코 국경을 폐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nancial Times 기사

[물류]

Bloomberg: Labor Talks at US East and Gulf Coast Ports Reach an Impasse

미 동부와 걸프만 항구 노조 협상 교착 상태

- 휴스턴에서 보스턴에 이르는 항구들의 화물 처리 지연을 야기 시키는 노동 파업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터미널 회사와 선사 측인 USMX와 노조인 ILA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USMX측은 “계속 협상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높은 임금 인상 등을 담은 협상안을 부두 노동자들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 반면 노조 측인 ILA는 “선사 CEO들은 수십억 달러의 보너스를 챙기고 글로벌 갈등과 자연재해로 인해 고객들의 운임료를 올려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 현재 일부 수입 업체들은 올해 홀리데이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항만을 이용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원유]

WSJ: OPEC Slightly Trims Oil Demand Forecast, Citing Softness in China OPEC, 중국 우려로 석유 수요 전망 소폭 줄여

-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에 대한 시장의 우려로 유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올해 석유 수요 증가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
- 비엔나에 본부를 둔 OPEC은 올해 석유 수요가 하루 평균 225만 배럴에서 211만 배럴로 늘려 총 1억43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수정은 1분기와 2분기의 실제 데이터를 반영한 결과이다.
- OPEC은 수요가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하루 평균 140만 배럴을 훨씬 웃도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항공 여행과 도로 이동의 증가, 그리고 비OECD 국가들에서의 산업, 건설, 농업 활동이 활발해진 것에 따른 것이다.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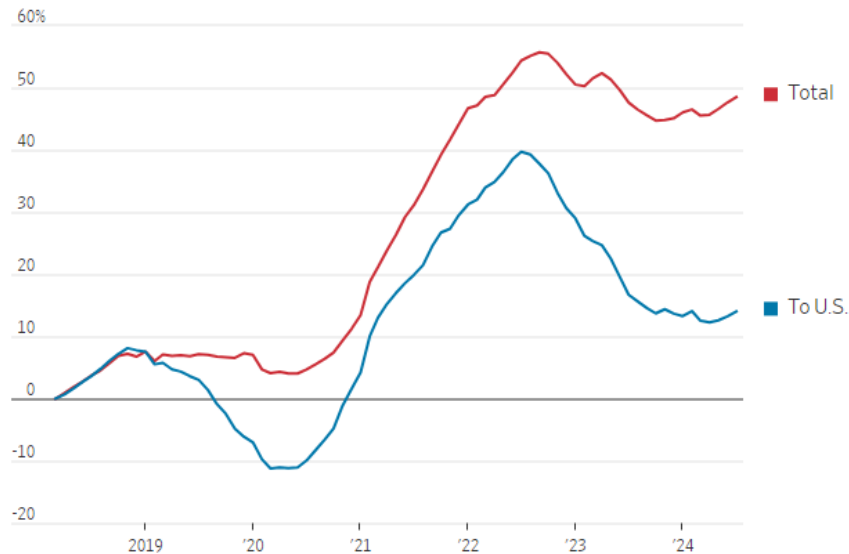
[미중 관계]

WSJ: China's Nightmare: A Second Trade War With Trump 중국의 악몽은 트럼프와의 2차 무역 전쟁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60%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로,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무역 전쟁은 2018년 트럼프가 태양광 패널,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 3,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발발했다. 당시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무역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서구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로 중국의 수출은 오히려 반등해 그 영향이 오래 가지는 않았다.
- 이후 중국 수출업체들은 정부 지원과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수출을 확대했다. 중국의 상품 무역 흑자는 6월에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하며 월간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는 유럽연합과 동남아로의 수출 증가 덕분이었다.
-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높은 제조업과 수출 의존도로 인해, 미중 무역 전쟁이 재점화될 경우 중국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픽셋 자산운용의 이코노미스트 Patrick Zweifel은 만약 해리스가 바이든의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면,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0.0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2025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8%에서 약 3.4%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Trading blows

China's exports, change since March 2018



Note: 12-month moving average in U.S. dollars

Source: CEIC Data

WSJ 기사

NYT: U.S. Officials to Visit China for Economic Talks as Trade Tensions Rise

미중 무역 긴장 속에 '미중 금융 워킹그룹' 개최

-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이번 주 상하이를 방문해 미국과 중국 간의 고조되는 무역 긴장 속에서도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이번 회담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며, 작년에 설립된 미중 금융 워킹그룹(U.S.-China Financial Working Group)을 통해 소집된다.
- 관계자들은 경제 및 금융 안정성 유지, 자본 시장,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NYT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The Boom in Travel Spending Has Slowed

여행 업계, 경기 둔화 조짐

- 여행 업계 전반에 걸쳐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호텔 및 여행사 경영진들은 미국 소비자들의 국내 레저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스피디아, 메리어트, 에어비앤비, 힐튼의 컨퍼런스 콜에서 '약세(softness)'라는 단어가 총 16번이나 언급되었다.
- 여행객들은 '전반적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며 예약에 더 신중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 덕분에 추가적인 비용이 없는 '올인클루시브' 가격 모델을 주로 채택해 온 크루즈 선사들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레저 여행객에 의존하는 일부 국내 호텔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여행 수요는 경제의 중요한 지표인데, 소비자들이 휴가에 돈을 쓰기 전에 식비와 숙박비 등 필수 비용을 우선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행 지출은 소비자들이 향후 1년 동안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다.

WSJ 기사

CNBC: Restaurant CEOs' new favorite word is value as they aim to bring back customers

레스토랑 업계, 매출 부진 속 '가성비'에 주목

- 레스토랑 CEO들이 이번 분기 매출 부진과 향후 트래픽 회복 계획을 투자자들에게 공유하면서 '가성비(value)'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맥도날드의 분기별 컨퍼런스 콜에서는 '가성비'라는 단어가 거의 80번 언급되었다.
- 타코벨의 소유주인 Yum Brands부터 피자 체인 Papa John's를 비롯한 다른 외식업체의 CEO들도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가성비'를 수십 번 언급했다. 버거킹의 모회사인 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의 CEO 조쉬 코브

자(Josh Kobza)도 “최근 몇 달 동안 ‘가성비’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었다”고 밝혔다.

-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19년 6월 이후 외식 물가는 27.2%나 상승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외식에 돈을 덜 쓰게 되면서 식당 방문객이 감소하고 매출이 부진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외식이 좋은 거래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많은 체인점들은 맥도날드, 버거킹, 타코벨이 제공하는 5달러짜리 식사 메뉴와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을 다시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파파존스의 재무 책임자 라비 타나왈라(Ravi Thanawala)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지출에 더 신중해졌으며, 매력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CNBC 기사

CNN Business: This industry is defying America's slowing job market 의료 산업은 강력한 일자리 성장세 유지

- 최근 몇 년간 호황을 누리던 미국의 고용 시장은 실업률이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둔화되었다. 그러나 ‘의료 산업’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의료 업계는 전국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전체 민간 부문보다 높은 임금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 노동부가 8월 초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의료 부문은 평균적으로 매월 59,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다. 이는 간호사, 가정 건강 보조원, 응급 의료 기술자 등의 일자리를 포함하며, 어떤 산업보다 많은 수치이다.
- 최근 발표된 정부 구인 데이터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뜨겁다. 6월 의료 및 사회복지 산업의 계정 조정 구인율은 7.6%로, 해당 월 전체 구인 시장의 5.5%를 크게 상회하며 모든 산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CNN Business 기사

美 경기침체 예고편일까...저임금 근로자 일자리 확 줄어

BoA 최고경영자 "조만간 금리 안내리면 소비자들 실망할 것"

미국 고용시장에서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확연히 줄고 있다.

소매점 판매원이나 창고직원, 가정부 등을 구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던 고용주들이 요즘에는 남아도는 인력을 해고하고 있다. 경기침체의 예고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요즘 미국 고용시장에서 시간제 노동자를 구하기가 쉬워졌다면서 이들 인력을 구하는 업체들이 속속 구인 공고를 철회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